

## 제5강: 오류 불가능성과 정치술

### ◆1교시: 소피스트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 ▲ 소피스트들을 부정만 할 수 없는 이유

지난번에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두 번째 논변이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존재와 인식에 관해서입니다. 존재함, einai와 noein, 앎에 대해서.

있음과 앎,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입니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란 점에서 의미가 있죠, 나중에 플라톤이 후기에 가서 성숙한 방식으로 전개할 존재론적 인식과 상당히 다른 맥락이지만, 중요한 대목이기는 합니다.

특히 소피스트스들에서 나온 중요한 대목들이 여기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피스트스들이란 대화편은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성숙한 방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해 나가도록 합시다.

(청중 낭독)

현 클레이니아스가 현재의 지가가 아니므로, 영어로 하면 is not이죠 무지자로서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나. 무지자로서 원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지자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앞에서 지자가 is not이 아니었다가 is가 되지요. 그 사이에는 becoming이 있죠. 여기에서 왜 갑자기 클레이니아스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기를 바라며, 현재 있는 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다.

클레이니아스가 무지자에서 지자로 된다는 것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어떤 논리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것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피스트들의 어떤 핵심적이 전략 중의 하나가 나오죠. 물론 플라톤의 일방적인 각색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습 중의 하나가 엘리아 학파를 악용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플라톤 자신의 사상도 엘리아 학파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잖아요. 파르메니데스의 사상, 다양성과 생성을, 다와 운동을 초월한 것이라는 사상은 플라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이 관계가 상당히 묘한 거죠.

나중에 소피스테스편에서 플라톤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엘리아 학파의

입장을 공격하죠. 천부살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나. 엘리아 학파의 무엇을 둘러싸고 이런 드라마가 펼쳐지느냐,

그것을 묻는다면 바로 einai죠. 이것은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이 있습니다. be동사가 이 두 개 다니까 영어로서는 구분이 안 되죠. 대부분의 서구어는 구분이 안 되죠. 우선은 술어적인 용법이고, 두 번째는 존재용법이죠.

세 번째는 진리의 용법입니다. 무엇무엇이 '이다'라는 용법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sky is blue는 that is alright입니다. 이미 '이다'라는 말 자체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성급하다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파리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술어적 용법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 한국어를 하지만 우리도 한국어 문법은 잘 얘기하지 못하죠.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죠.

희랍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인식이 안 되어 있죠. 예컨대 A becomes B, become이 문제지요. 생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죠, A becomes, not A로 해석할 수도 있고 not B, becomes B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not이라는 것은 술어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A가 아닌 것이 A가 아니고 B가 아닌 것이 A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면 A의 존재가 A의 무가 됩니다.

A가 아닌 것은 A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또 B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라 B가 아닌 것, 존재하지 않던 것이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다'와 '있'다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용법이 성립하려면 존재론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체와 속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죠. 어떤 실체가 있는데 A(x)인데 그것이 B(x)가 됩니다. 그럼 A라는 것이 떠고 있는 속성과 구분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x는 그냥 x인 거죠.

A와 B의 속성만 바뀐 거죠. 존재에서 무가 나올 수 없고 무에서 존재가 나올 수 없다는 모순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면 있다와 이다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다의 논리를 있다의 논리로만 해석하지 않으려면 실체, substance와 속성, property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A becomes B가 어떤 실체가 있고, A 상태에 있다가 그것이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와 속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실체는 그대로 있고 그것의 속성만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체, 속성 구조가 서양철학의 핵심구조로 자리 잡게 되죠.

현대철학에 오게 되면 이런 구조, 실체 속성 구조가 언어로 말하면 주어 술어죠. 주술구조가 그대로 논리화되지요. 물론 플라톤이 정의해놓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이것을 넘어선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요, 니체 이후에. 니체가 그것을 강하게 얘기했고. 그러나 그리스 철학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실체 속성 구조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다.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저 아포리아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고 희랍 철학사에서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어떤 극복의 대상이 되지만요.

#### ▲ 오류 불가능성에 대해서

누가 화가 나겠습니까. 클레이니아스가 동성애로 좋아했던 크세디포스가 화가 났겠지요. 그래서 분개해서 끼어듭니다. 말도 안 된다. 네가 하는 말은 거짓이라고 끼어듭니다. 그러자 또 거짓말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피스트의 기술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사실 말싸움 이상이 되는지가 법정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법정에서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잡아내서 둘러버리는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때의 재판이란 직접재판이고 인민재판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입니다. 격투기와 똑같습니다. 단 하루에 끝납니다. 요새는 문서 만드는 데만 몇 달 걸리고 몇 년 흘러가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십 년 걸리기도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아테네 사람들 참 할 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절박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소피스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박홍규 선생의 얘기도 나왔지만 소피스테스가 없었다면 플라톤도 없었지요. 플라톤이 극복하려고 하는 문제들을 제기해 준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윤리학 같은 데서는 아직도 소피스트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윤리학이나 정치철학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지요.

오히려 소피스트들이 더 급진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치 동양철학에서 공자에 대

한 평가가 양면적이듯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을 철학적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은 논쟁의 방식이 eristike, 상대를 이기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논쟁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양태가 문제입니다. 소피스트들의 주 목적은 정치나 법정에서의 전략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철학의 본질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피스트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불가능하다면 참과 거짓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철학적인 사고를 할 적에는 최대의 문제 중의 하나죠. 이것은 오류 불가능성의 문제입니다. 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소피스테스편입니다. 소피스테스편에서는 이 문제가 무와 연관됩니다. 또는 비존재라고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에서 진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이고 참이죠. 또한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또는 무엇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참이고 무엇인 것을 아니라고 하거나 아닌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죠.

유명한 정의이지요. 그와 같은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이 있어야지요. 또는 '없'다라는 것이. 이 개념이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없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플라톤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있다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참이고 없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엘리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파르메니데스를 악용하는 거죠. 파르메니데스는 자신의 시대에 머물렀던 것인데 소피스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악용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파르메니데스가 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존재한다는 엘리아 학파의 논리를 가져와서 있음만이 있고 없음은 없다는 논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피스테스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의 비전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비존재를 아예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타자로 본다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자면 상대적인 무가 있고 절대적인 무가 있어요.

절대적인 무가 있고 부재, essence가 없는 상대 무가 있는데요. 이 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무로 보면 파르메니데스가 됩니다. 이 무를 상대 무로 보자. 부재로 보자, 부재는 동일자의 타자다. 이것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철학적으로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이죠.

그 논리가 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물을 말하면서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말할 때는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말을 한다. 존재하는 것들에 방점을 찍어야 하죠.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서 말해지는 것들을 말하고 다른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과 분리해서 바로 그 대상을 말하고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참다운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을 말할 때 참다운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논지의 어디가 틀린 겁니까.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따라서, 거기가 틀린 거죠. 말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과 분리해서 그 대상을 말하고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왜 그것이 참이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맞게 말할 수도 있고 틀리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 무엇에 대해서 말할 경우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따라서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에우티데모스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말하면 그것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스꽝스런 논리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처럼 오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근거 중의 하나가 비존재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이죠. 또는 번역하기에 따라서 존재만이 가능하고 무는 불가능하다이죠.

비존재는 행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없는 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소피스트들의 논리도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고저찌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pragma, 사물이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라틴어의 objectum, 대상(對象)이죠. 무엇을 얘기하면 말 그대로 무엇에 대(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이 논리 자체가. 이것이 확보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때 그 pragma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 안 된다는 겁니다.

희랍 문화사에서 볼 적에 mythos를 거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우스에 대해 얘기하려면 제우스 어딴냐, 가리켜 보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mythos가 다운된 시

대의 것입니다.

소피스트들의 논의를 보면 결코 덮어놓고 폄하할 수 없는 이유는, 적어도 경험주의에 대한 일관된 전제를 갖고 있어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것 외에 무엇을 믿느냐는 거죠. 그것을 긍정하는 거죠.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것도 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요. 상대주의지만 지각을 인정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인정하는 거죠, 이런 입장은 수미일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피스트들을 퀘변론자들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요.

인식론적으로 볼 때 일관되게 경험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세기 계몽사상에 가면 역전되죠. 플라톤 같이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폄하의 대상이 되고 감각주의자들이 더 득세를 하게 되죠.

변론가가 대중 사이에서 말하고 있을 때에는 무언가 행위를 하고 있으며 행위를 하는 만큼 만들고 있다. 그런데 말하는 것도 행위이고 만듦이다. 그러므로 비존재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말하는 사람을 말할 때 이미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다. 비존재는 있을 수 없으며 만듦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고로 어느 누구도 뭔가에 대해 말하는 한 허위를 말하지 않으며, 디오니소도로스가 말할 때 진상과 존재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파르메니데스 의 논리를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다’와 ‘있다’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니 당연히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존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존재가 있는 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논박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그 것만으로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좀 틀어지죠. 얘기한 이 라인을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일부러 트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야기의 라인을 따라서 해야 하는데 맘에 안 들면 딱 틀어버리지요. 사물을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 ▲ 선미하다는 것에 대하여

선미한 사람들,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선미한 사람들,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회랍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회랍 문명과 현대 문명의 차이는 지금과는 진선미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아주 뛰어난 예술가가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인간일 수도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무식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희랍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참된 것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진선미란 개념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자 디오니소도로스는 선미한 사람들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이것을 논박해야 하겠지요. 크스티포스는 선미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만으로 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디오니소도로스는 어떤 것을 치고 들어 가냐 하면 선미한 사람들은 과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느냐는 거죠.

논리가 뭐냐면, 선한 것은 선한 것이며 나쁜 것은 나쁜 것인데. 선한 사람이 사물을 있는 대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나쁜 것을 나쁘게 말한다. 이 나쁘게 말한다는 표현을 유심히 보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카코스하게 말한다. 이것이 모순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람은 큰 사람을 크게 말하고 작은 사람은 작게 말하는가라고 질문하니까 여기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디오니소도로스는 어떻게 선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모욕적인 언사라고 얘기하죠. 뭐가 잘못된 거죠?

나쁘게 말한다는 나쁘다는 주체의 성격으로 둔갑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철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과학의 대상이 저급하기 때문에 그 과학은 저급하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충학이라고 하자면, 기생충 같은 지지분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저급하다는 겁니다. 천문학은 위대한 우주를 다루기 때문에 우수하다는 것이고요, 잘못된 논리죠. 천문학은 위대한 우주를 다루지만 천문학이라는 담론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기생충학은 그 대상은 아주 저급할지 몰라도 학문이 뛰어날 수는 있죠. 대상과 그 대상이 말하는 것을 섞어 버리는 거죠. 그런 식의 묘한 결론을 이끌어 내죠.

또 얘기가 넘어갑니다. 반대함. 누가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각자에는 logos, 정의가 있다. 이때의 정의란 definition을 말하는 거죠. 그 정의는 각각의 존재를 있는 대로 규정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비존재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디오니소도로스와 크세디포스 두 사람이 동일한 사물의 정의를 말하고 있을 때에는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고 동일한 것들을 말한다.

두 사람이 다 사물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두 사람 다 사물에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오류죠.

한 사람이 한 사물의 정의를 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물의 정의를 말할 때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사물의 정의를 말할 때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의 다른 사물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동일한 사물을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대로 말할 수 없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logos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아이러니한 대목이죠.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죠. 존재하는 것들은 각각의 definition이 있다. definition이라는 것은 logic으로 말하는 것이고 ontology로 말하면 essence이지요.

존재하는 것들 각각은 essence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언표한 정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주장을 디오니소도로스가 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 그런 구절이 많아요.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복잡합니다. 어디까지가 기술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자신의 생각인지 불분명한 것에서 오는 것도 있고.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더구나 대화로 되어 있어서 읽기도 불편하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존재를 규정한다.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비존재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이죠.

크세디포스가 디오니소도로스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반대함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두 사람이 동일한 사물에 대해 말하고 있을 적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반대함이 없는 거죠. 서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니까 반대가 없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러나 두 번째로 두 사람이 다 사물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을 때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두 사람이 다 사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두 사람이 다 사물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서 두 사람이 다 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왜 나올까요. 앞에 나온 오류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만약 오류가 가능하다고 하면 두 사람이 다 사물의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틀리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틀렸다는 겁니다. 둘 다 정의를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 거죠. 말은 하고 있는데 틀리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류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이 사람들에게 틀렸다는 것은 말하는 것에 대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셋째로 한 사람이 한 사물의 정의를 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물의 정의를 말할 때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이 한 사물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사물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반대로 말할 수 없다.

이런 경우지요. A라는 사람은 이것 말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에서는 가능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연관 지어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논리는 뭐냐면, A가 이것을 말하는 한에서 A에게 다른 것은 무라는 겁니다. B가 이것을 얘기하는 한에서는 B한테 다른 것은 완전히 무라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데요.

한 사람이 한 사물의 정의를 말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물의 정의를 말할 때,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한 사람이 한 사물의 정의를 말할 때,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란 뭐죠. A는 자신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그 외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B는 그 반대의 경우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없는 거죠. 앞의 논리로 밀어 붙이면요. 자기가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인데 어떻게 A와 B가 서로 논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논증은 복잡하지만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뭔가에 대해서 반대를 할 적에는 그 대상이 공통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 그런 경우 많지요. 얘기할 적예요. 두 시간 동안 논쟁했는데 서로 딱 얘기했어요.

가만히 얘기해 봤는데 서로 딱 얘기 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얘기가 이렇게 되죠.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말도 거칠어지고요.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할 적에는 진상을 말하고 있던가, 그렇지 않다면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고 물어보죠.

뭔가에 대해 말을 하면 그것은 무조건 참이고, 거짓인 것은 아예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맞다고 대답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거짓을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을 생각할 수도 없느냐고 물어보죠.

이것도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을 구분하고, 생각할 수도 없느냐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합니다. 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생각하지 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무지도 없고 무지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뭔가를 모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틀리고 반대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상상이지만 아테네 시대에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문맹이었을 텐데.

대중들이 글을 읽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명에서 글을 읽었던 것은 굉장히 소수의 특권층뿐이었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합니까. 상상이지만 만약 법정에서 이런 논리로 논쟁을 벌였다면 그 법정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말을 하기 위해 그런 궤변을 말하는지 아님 무식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지 묻는다. 이때의 무식하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의 뉘앙스와 달리 무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반박해 보아라는 거죠. 이것은 반박을 하지 않고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거죠. 허위를 말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박이 불가능할 것인데 디오니소도로스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반복을 하고 발뺌을 하죠. 클레이니아스는 만약에 우리가 과오를 범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면 배우려는 사람에게 탁월성을 부여하겠다고 천명한 소피스트는 누구의 교서로 아테네로 왔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클레이니아스가 복수하는 거죠. 앞에서 배움 갖고 한번 당했잖아요. 배움의 문제를 놓고서 완전히 한방 먹었기 때문에 복수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우물쭈물 하니까 기가 살아서 복수하는 거죠.

당신들이 arete를 전수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과오를 범한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느냐. 과오를 범한 사람을 가르쳐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갇아주는 거죠.

디오니소도로스가 얘기를 틀어서 지금까지는 einai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인식으로 noein로 얘기를 하죠. noein이란 말은 익숙하죠. noesis, noema할 때와 같습니다.

(청중 낭독)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사고한다는 것은 주제, 영혼의 기능이고 뜻한다는 것은 언어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디오니소도로스가 왜 당신은 말이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는 한 발 빼는 듯하면서도 논박을 하죠.

(청중 낭독)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고 있지요. 그러나 박홍규 선생의 용어가 특이해서 다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타자성이 뭐지요. 아까 우리 용어로 말하면 속성이라는 겁니다. 일자는 그대로 존재하는 실체고 타자는 그 실체에서 변해가는 측면입니다. 실체는 변하지 않는 측면이고 타자는 변하는 측면이지요.

그래서 106쪽 맨 위. 정의가 구분해 주는 것은 일자의 자기 독립성과 타자의 타자성이다. 정의라는 것은 그것의 essence를 잡아내는 것이고 그 essence는 자기 독립성의 측면이고 변하는 측면은 타자성의 측면이죠.

사실은 이것은 소피스테스편에서의 논의를 미리 가져와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 ◆ 2교시: 정치술의 중요성

### ▲ 정치술에 대하여

(청중 낭독)

소피스트들이 eristike, 논박하는 것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인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 대목을 우리가 프로타고라스 할 때 이미 한 부분이라 어려울 건 없죠.

몇 군데 좀 짚어 보면, 말을 만드는 기술과 말을 이어가는 기술은 다르다. 무엇을 제작하는 것과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악기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용하는 기술이다.

차를 탈 때가 행복한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제작술을 진제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용술이지만 좀 더 일차적인 것을 제작술이겠죠. 그렇게 봐야겠지요. 지금 현대 문명에서도 흥미로운 문제죠.

현대 문명으로 올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시되는 거죠. 예컨대 자동차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카레이서는 잘 알지요. 그런 식이지요.

점점 어떤 하드웨어 제작보다는 디자인이 더 중요하게 되지요.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했었으니까요. 요즘은 적어도 인문학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이라고 하면 어감이 좋지않은 않잖아요.

기술 그러면 왠지 폼하해서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거든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사실 그리스 시대에 동그란 판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

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 기술이 발달하니까 거꾸로 이렇게 잘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요. 약간 파격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기술과 예술이 갈라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이고 예술가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술과 예술이 갈라지는 거죠. 예술은 뭔가 일탈적이고 이반적이라야 좋아하잖아요. 그런 맥락도 염두에 두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수렵술은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획득술 정도겠지요.

내가 무언가를 제작하는 제작술이 있고 제작되어 있는 것을 얻는 획득술이 있지요. 그것을 그냥 획득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구분도 생깁니다.

핵심은 역시나 정치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통시대와 현대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귀족계급이 분화되어 있지 않지요. 귀족이 정치도 하고 돈도 많고 문화생활도 하는 거죠.

정치활동을 하고 집에 와서는 땅 관리하고 밤에는 책 쓰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권력이면 정치가, 돈은 재벌 등, 문화가 다 구분되어 있죠. 옛날에는 지배계층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갈등은 있었고 복잡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군인과 일반인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옛날에는 귀족이 군인이었습니다. 현대로 오면 이것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정치죠. 다른 것 갈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치죠. 정치 그 자체가 하나의 직업이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귀족들 내지는 지식인들이 공통으로 정치를 했죠. 그러나 오늘날엔 정치가가 하나의 직업이 되었죠.

정치라는 것은 전체인데 현실에서는 부분의 문제가 되었죠. 이렇게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현대의 문제는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직업적 정치가가 아닌 사람들이 담론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정치에 힘을 가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중들은 너무 딱딱하니까 안 읽고,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철학책은 아무도 안 읽죠. 대중들은 영화나 소설을 읽죠. 정치가들은 다 자기 욕하는 거니까 안 읽고요. 이렇게 전부 다 따로 노는 겁니다. 통로가 없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통로는 선거밖에 없지요. 뭐가 있습니까. 선거할 때만 잘 보이고 끝나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정치라는 것은 만인의 문제인데 그것이 직업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정치학이 곧 철학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치학은 사회과학의 분과일 뿐이잖아요. 담론세계에서도. 그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정치가 만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들의 문제이고요.

대의정치, 대신하는 것이죠. representation. 보통 이것을 재현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표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대신이기도 하죠. 정치에서 이 ‘대’자를 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래서 정치술은 국가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원인이며, 정치술만이 국가라는 배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키를 잡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모든 것을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거죠. 요즘은 불가능하죠.

(청중 낭독)

#### ▲ 앞으로 공부할 것들에 대하여

제왕술이라는 번역은 좀 어색하고요.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술 정도가 어울릴까요. 바실레우스란 전통적인 왕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그만 도시의 장(長)들입니다. 트로이 전쟁 때의 오디세우스 같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통치술, 지도자술 정도라고 할까요.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라 별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바실리케가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바실리케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권력을 잡느냐만이 중요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정치술이고 통치술인 것인가를 소크라테스가 답을 못 내리고 상대방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고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선불교에 방할이라는 게 있지요. 방은 몽둥이고 할은 뭉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할을 하는 것 같아요. 크게 세 파트인데 여기까지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배움에 관한 것이었고 여기서는 einai과 noein. ‘있다’와 ‘이다’의 관계였죠. 사실 이 부분은 박홍규 선생의 본령은 아니에요. 박홍규 선생의 진면목이 나타나려면 본격적으로 존재론으로 들어가야 되요.

그 다음에 할 것이 파이드로스, 자기운동. 2편이네요. 본격적인 존재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은 서론인데 생각보다는 어렵네요. 물론 여기서도 얘기하다 보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죠.